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4면
국립군산대, 혁신 · 도약의 3년

전주매일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음 2월 19일) 제370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9개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북형 특화 새만금국가산단 · 진안 상능길마을 등 2개 모델 개발

도, 새만금청 · 군산시 · 진안군 · 전북TP 등 9개 기관 · 기업과 협력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9개 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대비하고, 전북형 모델을 구축해 지역 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진안군,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OCI SE, 진안고원협동조합, 전북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특화지역 지정과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국가산업단지 5·6공구를 대상으로 한 '전력수요유치형 모델' △진안군 동향면 상능길마을을 대상으로 한 '신산업활성화형 모델' 등 두 가지 특화지역 모델을 개발해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전력수요유치형 모델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신산업활성화형 모델은 기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을 도입하는 형태다.

협약에 따라 기관별 주요 역할이 정해졌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새만금개발청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새만금개발공사와 전북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OCI SE와 진안고원협동조합은 전력 생산과 전력원가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전북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을 맡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은 올해 3~4월 공모 절차를 거쳐 2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참여 기관 및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새만금의 강점인 스마트그린산단의 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를 결합한 모델을 바탕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분산에너지사업자 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실현에 기여하겠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센터 등의 산업을 유인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각 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경찰, '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네번째 신청

경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

'전북 전통주' 의 품격 알린다

전북자치도, '2025년 올해의 건배주 선정'

'탁주' 지애의 봄향기의 대비모주 등 4개 부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지역 전통주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건배주는 △탁주 부문 '지애의 봄향기의 대비모주(김제시)' △약·청주 부문 '공동체 공간수작의 숨은골약주(완주군)' △과실주 부문 '덕유양조의 무주구천동머루와인(무주군)' △증류주 부문 '초이리 브루어리의 리28(익산시)' 등 총 4개 제품이다.

'올해의 건배주'는 전북자치도가 지역의 우수한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군별 출품 개수 제한을 없애고, 주종별 5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보다 다양한 전통주가 출품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부안 등 10개 시군에서 총 15개 제품이 출품됐다. 전북자치도는 출품된 제품을 대상으로 주류 품평회 입상 내역, 인공 감미료 첨가 여부 등 서류 평가를 진행한 후, 부문별 상위 3개 제품을 선정했다. 이후 주류 관련 전문 심사위원 3인의 관능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5년 올해의 건배주'를 확정했다.

지난해 선정된 '2024년 올해의 건배주' △전주 이강주 △한영석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에 선정된 4개 제품.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청명주 △붉은진주 머루와인은 전북자치도 공식행사에서 건배주로 활용되며 지역 전통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올해의 건배주가 공식 만찬주로 선정돼, 행사에 참가한 기업과 바이어들에게 전북 전통주의 품격을 선보였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선정된 건배주를 도내 공식행사에서 적극 활용하고, 전통주 인지도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오프라인 판촉 행사,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판매망 확대에도 나선다.

/이만호 기자

"현장체험학습 학교 현장 목소리 반영"

전북교육청, 학생 안전관리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숙박형 현장체험 안전요원 인력풀 구성 · 운영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안전 관리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보조인력) 배치와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았다.

특히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시 참가 인원 규모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안전요원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숙박형의 경우 참가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고, 1일형은 학생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 업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업무지원센터가 지원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도내 초·중·고교 교직원 및 업무담당자, 교원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 TF를 구성, 학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현장체험학습 추진 방안도 모색했다.

지난 12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학교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충분한 교사 의견 수렴 △현장체험학습 관련 서류 간소화 △특수교육대상 학생 참여시 안전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안전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시에는 학생 트라우마 상담 및 치료,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구제 지원, 교사의 심리 치료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 · 남원 · 고창 포함 총 37만평 규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심의

도, 지방시대위원회서… 정책 연계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제9차 전북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익산·남원·고창 등 3개 시군을 포함한 총 37만 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안)을 심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차 지정(전주·익산·정읍·김제, 88만평)에 이어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익산(7만평), 남원(16만평), 고창(14만평)으로, 총 14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며, 3,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기회발전특구 총 면적은 125만 평으로 확대되며, 첨단소재·부품 및 라이프케어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추가 지정(안)은 전북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되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회발전 특구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사업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도 진행됐다.

특히, 도는 도심융합특구를 제외한 3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문화특구)를 중심으로 '인력양성-일자리 창출-정주여건 개선'이 선순환하는 정책 모델을 구축해 특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